

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(마태복음 25:31~46)

1. 본문 비유의 _____(Context)을 찾아 봅시다.

1) 25:31절~46절의 비유는 25장의 비유 중 _____ 비유입니다.

① 대상:

② 핵심 주제:

2)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_____입니다. (31-33절)

(마 25:31-33)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. => 나는 _____입니다!

(겔 34:17)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. => 양과 양 사이의 심판

3) 본문 비유의 핵심은 양과 염소의 _____이 아니라 _____ 염소 _____입니다.

2. 본문 비유의 _____(Content)을 살펴 봅시다.

(마 25:34)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.

(마 25:35~36) 내가 주릴 때... 주었고... 하였고... 하였고... 돌보았고... 보았느니라.

(마 25:37~39) 의인들이 대답하여... 대접하였으며... 하였나이까?... 입혔나이까?... 뵈었나이까?

(마 25:40)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.

(마 25:41)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.

(마 25:42~43) 내가 주릴 때... 아니하였고... 아니하였고... 아니하였고... 아니하였느니라.

(마 25:44) 그들도 대답하여... 주여 우리가 어느때에... 아니하더이까!!

(마 25:45)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.

3.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_____(Focus)은 무엇인가요?

1) 예수님은 _____ 오시며, _____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.

(마 25:46) 그들은 영벌에,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

* 영생: “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.” (34절)

* 영벌: “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” (41절) => (마 25:10) 문은 닫힌지라. (마 25:30)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.

(마 5:3)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.

2) 선행은 구원의 _____이 아니라 구원의 _____입니다.

(마 25:34)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.

(마 25:41)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.

(마 7:17~20)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....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.

(마 7:23)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. (25:41) 나를 떠나..

3) 마지막 때에 _____하지 말고, 늘 _____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.

* 의인(복 받은 자): _____ * 그들(저주 받은 자): _____

(약 1:22)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.

* _____각, _____각 => 신앙의 거듭남 => 신앙과 인생의 착각이라는 영적인 병

(약 5:2)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.

(약 1:27)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.

(마 24:14)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.